

SUMMARIES

How the First Diplomatic Mission Understood the Policy of “Rich Country and Strong Army” in the Early Meiji Era

CHEON, Seong-hee

This article discusses, through *Il tongkiyu* how Kim Ki-su 金綺秀 understood the policy of “Rich Country and Strong Army” and reacted to it.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ed to realize the policy of “Rich Country and Strong Army” by westernizing. The itinerary included “Rich Country and Strong Army” — related facilities such as army training fields.

There are two reasons why the Japanese government urged the mission to realize the policy of “Rich Country and Strong Army” in Korea. First, they feared Russia’s southern expansion. Second, they need to restrain to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lthough historically Korea had had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Japan wanted to break such relation and force Japan’s influence upon Korea.

While Kim Ki-su recognized the necessity of military enlargement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he insisted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Chinese system and Confucian disciplines as it had always done.

Kim Ki-su criticized the principles of “Rich Country and Strong Army” such as dependency on western technology.

일본 근대의 《조선관》—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그 시좌로써—

미타니 노리마사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추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즉, 우선 언어론에 관해서는, 현재에 있어서도 조선어가 일본어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대 조선인의 한 집단이 일본 황실을 형성했다고 보는 의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리의 근거를 파헤쳐 보면 그것들은 가나자와 쇼오자부로오(金澤庄三郎)의 『일선동조론』이나 『일한양국어동계론』(日韓兩國語同系論), 혹은 기다 사다끼찌(喜田貞吉)의 「일선동민족동원론」(日鮮同民族同源論)에 봉착하게 된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일선동조론〉에 사용되고 있는 학술적 근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바꾼 〈일선동조론〉은 현대 이 시대에도 유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 당시 유포된 〈일선동조론〉에는 그것을 형성하는 요소가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하층에는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의미로서 언어나 민족의 출발점의 문제 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현실의 정치 상황에 원용했을 때 「한국합방」을 논리화하는 세력에 이끌려 크게 그 길을 이탈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타부로 여기는 〈일선동조론〉이며,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일선동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넓은 의미, 즉 학술적 레벨의 근거는 지금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관계 도식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ishida Kitaro's View of Imperial Japan

TAYAMA, Reishi

It is impossible to do entire justice to the word “一 (oneness)” employed by Nishida's philosophy in English or even in Japanese, which covers “singularity” and “unity”. This problem becomes particularly acute when one tries to find a coherence in such concepts as 「一即多」 and 「純粹經驗 (pure experience)」 which

appear in *The Study of Good*. “Pure experience” plays the key role in *The Study of Good* as the basis for the oneness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the claim, the two meanings of 「一」 are not clearly separated. I try to show how Nishida’s 「一」, or rather the obscurity in its meaning, is reflected in the nationalism of the Kyoto School by differentiating “singularity” from “unity”. This differentiation, however, has been one of the major topics i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St. Thomas and Kant are examples. They produced delicate arguments for the denial of “unity” as an object of experience. With their solid arguments as the background I shall inquire into how “singularity” and “unity” are confused in Nishida’s thought. “Unity” was abused by the Kyoto School when it supported the Pacific War as a sacred cause. Unity as the condition of experience cannot be an object of experience. But, unity was tacitly replaced by singularity in the talks by the Kyoto School. By doing this, it claimed the unity of nations by the dominance of one nation, namely, Japan.

한시 문집에 나타난 유길준의 개화 사상

허 성 일

유길준의 문학에 나타난 근대적 사상과 우국충정을 지금까지 거의 도외시되었던 그의 한시 문집인 『구당유고』와 『구당시초』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유길준은 한문에 뛰어난 사람이며, 그의 개화에 대한 정열이 한시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작품들을 골라서 문학에 나타난 유길준의 개화의식과 근대 사상, 격변기 지식인의 회한과 애국심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길준의 문학적 특징 및 그 성향을 밝히는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작업으로 정치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유길준에 대한 면목을 살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유길준은 어린 시절 향시(鄕試)에서 지은 시가 장원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 인물이었던 당시의 홍문관 대제학이었던 박규수가 그 시를 보고 감탄했을 정도의 시적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당대의 개척자이

며 선각자인 동시에 지식인으로서의 표층적 의식은 『서유견문』을 비롯한 수많은 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바이지만, 그의 내면적 의식세계는 그의 한시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격동의 시대를 살며 고뇌하던 선각자의 진솔한 모습이 400여수에 달하는 그의 한시에 그대로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유길준의 시세계는 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으로 무장한 그는 시 역시 구태의연한 고인의 작시법을 답습하는 데에서 벗어나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시론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시문집에 나타난 한시를 통하여 그나마 그의 전생애에 걸친 내면적 의식세계를 살펴보았다.

조선총독과 종교정책

—조선신궁의 설립과 신도 보급정책을 중심으로—

신 창 호

한국은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국가로서의 권위를 전부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1945년 8월에 해방되기까지 35년간, 일본의 헌법과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파견된 총독의 수는, 계 8명이었고 9기의 총독정치가 펼쳐졌다. 한국에 부임한 8명의 조선총독은 모두 현역 군인이었고, 군복을 벗지 않은 채 조선반도를 지배했다. 8명의 조선총독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각각 다른 시국에 대응한 여러가지의 정치정책을 펼쳐 나갔으나,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책은 문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독들은 강압적인 정치정책의 기초를 문화의 통치와 통화에 중점을 놓고 문화정책을 펼쳐 나갔다. 8명의 총독들의 종교정책의 내용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종교정책을 통한 지배 의지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8명의 조선총독들이 펼친 종교정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일본의 전통 종교이고, 메이지이후 국가 종교로서 성립·정착한 신도의 보급정책. ②조선 500년간의 윤리규범이었던 유교, 유학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 ③조선왕조에 배척되어 왔던 불교의 친일화 정책. ④성가신 외국인선교사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 ⑤한국의 자생종교인, 민족계 종교에 대한 억

압정책. 이 다섯 가지의 종교정책 중에서, ②③④⑤는 한국 민중에게 반일적인 민족정신을 배양하고,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교에 대한 억압정책이었다.

그러나, ①의 신도의 보급정책은, 일본제국에 의한 조선 식민지 지배의 특색이 잘 나타난 정치정책이고, 종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개국 이래, 개항한 항구나, 일본인들의 거류지에는 거류인이 자주적으로 세운 신사도 있었다. 그러나, 한일합방이 성립된 후에 건설된 신사는, 일본제국의 일관된 식민지 정책의 사업으로서 건설된 것이었다. 특히, 한국의 수도인 경성 (현재의 서울) 의 중심에 있는 남산 중턱에 설립된 조선신사는 다이쇼 14년 6월에 「조선신궁」(朝鮮神宮)으로 개칭되었다. 이 조선신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1,564,853 엔이라는 막대한 건설비용과, 127,900 여평의 광대한 토지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신사건설의 목적은, 조선반도내에 일본의 사회조직과 일본의 안도를 위한 일본적 신앙을 보급하는 동시에, 한국인과 일본국민과의 동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이 영구적으로 조선반도를 식민지통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인 종교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8명의 조선총독들은 조선반도의 각 주요 도시에 신사를 건설하고,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강제적인 신사참배를 요구함으로써 기독교를 비롯한 각종 전통 종교와 민족계 종교를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종교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차례 차례로 총독들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해방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한국 신소설에 나타난 일본관 —이인직의 『혈의루』를 중심으로—

김 성 봉

소설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문제에 중점을 두는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문학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작가의 창의적인 힘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나 창조된 인물은 완전하게 현실과 무관한 세계의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사는 한 시대의 한 사회의 종합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그 시대의 사회의식을 인물들을 통하여 작품 속에 반영시키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떠나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대의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는 작품 속에 그 사회와 시대의식을 담게 마련이며, 작품과 사회와의 관계는 필연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인직 (李人植) 『혈의루 (血의淚)』에 나타난 일본인 간호부·군의관은 물론, 헌병까지도 모두 선한 보호자나 인도주의적인 휴머니스트의 특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일본인의 인간상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인직이란 작가의 이력이 어디까지나 이완용 (李完用) 의 비서역으로서 한일합방의 진행 과정에 직접 참가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혈의루』에는 정치에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이 4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 정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정도의 미미한 신분의 소유자였다. 그의 소설에서 보면, 과거에 양반들이 잘못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논리로 시종되는 과거비판, 양반비판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그는 과거의 정권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기억을 갖고 있거나 앓는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할 정도이다. 말하자면 그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하여 어떤 적개심을 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체제 아래서는 신분상승에 있어서도 모종의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문명개화의 명분을 업고 맹렬하게 침투해 오는 일본의 존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인 그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약속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방식은 연방의 형태를 취한 합방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병합이든 상관할 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혈의루』에서

具氏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獨逸國같이 聯邦道를 삼되 日本과 滿州를 합하여 文明한 強國을 만들고자 하는 比斯麥과 같은 마음이오.

와 같이 운운하는 것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획책하는 일본의 야욕에 대한 거부반응의 저항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보다는 그 저의를 냉철히 보지 못하고 무조건으로 플러스적인 준거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편애적인 일본판은 4년 후에 합방론 비슷한 견해를 개진하여 병합의 추진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 귀절은 이인직 자신이 훗날 한일합방의 실무자역을 담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의 친일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또 이 대목을 문면 자체만으로 따지면 다루이토끼찌(樽井藤吉)가 제창하고 이용구(李容九)가 찬동한 이른바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을 연상시키는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에 대한 상승적인 미화과정은 비록 이조판료의 부패에서 발단된 우열기준의 비교의식에서 촉발되어진 것이라도 어디까지나 자기협오적 열등감을 노출시킨 것 밖에 없다.

이회성의 조국관 그에게 있어서 [국적]이란 무엇인가

신 예 숙

1998년 5월, 이회성은 한국, 서울에서 스스로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1956년, 와세다대학에 입학해, 유학생 운동을 했었다. 그때부터 조총련과 관계를 가지고, 졸업후에는 조총련 중앙교육부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선신보사에 근무한 경력의 소지자이다. 그 동안 그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재일조선인 귀국 운동에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1967년 조선신보사를 그만두고부터 조총련과도 소원해지고 한국에도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무국적자의 입장을 지켜왔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회성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걸어온 길을 꼼꼼이 검토해서 그가 어떤 입장에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조국이라는 것을 보고, 어떠한 자세로 조국과 관계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회성의 테마는 조선민족 그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 조선민족을 바라보고 생각해 왔다. 조선민족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회성의 입장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그는 숨은 조선인에서 조선인민공화국에 귀속하는 조선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북쪽에도 남쪽에도 귀속하지 않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통일국가 [조선]에 자신을 귀속 시키기를 원했다. 또 다시 나아가서 그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어떤 이민족의 피가 섞인 자도 품 안에 꺼 안는 [광대한 조선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귀속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회성이 이와 같은 조국, 민족의 개념을 형성해 온 것에는 그가 조선민족을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씩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조선인민공화국조선인] [재일조선인] [유역조선인]이라는 위치에 두고 조국, 민족을 객관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회성이 민족을 응시하고 생각하는 입장, 시점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복잡해지고 광대한 범위에 미치게 되었다. 그 때마다 이회성은 그것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 더 위의 위치에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갔다. 지금 현재 이회성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조선민족, 그리고 그곳의 현지민과의 혼혈에 의해 출생한 자까지도 조선민족으로 인정하고, 그 광대한 조선민족의 개념 속에서 [민족적동일성]을 추구해 가려고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코스모폴리탄에 가까운 것이다.

이회성은 자신이 귀속해야 할 곳, 즉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곳을 이와 같은 장대한 곳에 두고 있다. 그 곳에서 국적 문제를 생각하면 어느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회성에 있어서 국적은 그의 사상을 추진해 가기 위해 선택하는 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thnic consciousness of Zainichi-Korean in Lee Yan-ji's novels

Kim, Keuk-mi

The theme of this paper is the “ethnic identity” of Zainichi-Koreans, or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term Zainichi-Korean mainly refers to Koreans who

immigrated to Japan during the period from just before World War II and immediately after it, and their descendents. Today, half century after the end of the war, the meaning of "ethnicity" or "nationality" for Zainichi-Koreans themselves seems to have gone through important changes. It has, of course, been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Japanese society, and by the two Korean nation-states that confront each other along the 38th parallel. However Zainichi-Korean consciousness is not formed solely by such national influences. The journalist Nomura Susumu (author of *Sekai no Korean* [Koreans in the World]) argues, "We mistake the essence of the matter if we view the Zainichi-Korean issue as a problem between the two nation-states of Korea and Japan."

In this paper the author discusses the novels and essays of Lee Yan-Ji, a Zainichi writer who died too young at the age of 37. Her works have rich depictions of subjectivity, sharply presenting the self-consciousness of her mainly female protagonists. The novels reviewed here are *Nabitaryon*, *Koku*, and *Yūhi*. Several of her essays written along with these novels are also examined. The author stresses the vividness and strength of the novelist's focus on "the place where one really is". She herself left Japan for her Korean homeland that she dreamed of, but realized she was, in fact, an alien in the real land of Korea. Yet, even after going through the conflicts brought about by searching for herself as a "Korean", she kept pursuing some "place" where she belonged. Not a few Zainichi-Koreans would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Zainichi heroine in her conflicts of nationality and the search for the "place" to be. The author wants to present, in Lee Yan-ji's search for the meaning of her "ethnicity", one factor of the state of Zainichi-Korean ethnic consciousness.

한국의 현대 민화—일한 비교의 시점에서—

시마무라 타카노리

본 발표는 한국의 「현대민화」 속에서 「현대전설」과 「현대소화(笑話)」를 뽑아서, 민속학적 일한 비교의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민화」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의 민중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구두전승의 총칭이고, 「현대전설」은 「진실에서 유포하는 아마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를, 「현대소화」는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각각 가리킨다.

본 발표에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사회에서는 「제사」 「학교」 「빨간 마스크의 여자」 「주술」 「여성」 「이상한 음식·식인요법」 「에이즈」 「화폐의 디자인」 「군대」 「풍수」 등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현대전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2) 이들 이야기군에는 「제사」 「군대」 「풍수」와 같이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야기도 존재하지만, 스토리 전개 of 구조나 즐겨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일본의 현대전설과 동일한 이야기군도 존재하고 있다.
- (3)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가·선거」 「학생운동」 「최불암 시리즈」 「간이 큰 남자 시리즈」 「대학」 「군대」 「음담 패러디」 「만득이 시리즈」 「참새 시리즈」 「섹스」 「펠시맨」 「IMF 시리즈」 등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현대소화도 많이 있다.
- (4) 이들 현대소화의 대부분이 정치나 권력, 사회문제에 대한 풍자적인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트릭스타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도 있다.
- (5) 현대전설의 경우와는 달리 이런 현대소화의 본연의 자세와 같은 것을 현시점에서 일본의 현대민화 연구의 성과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 (6) 이와같은 상황에 관해서 두 가지의 설명 가능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대 일본 사회는 한국의 그것과 달리,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는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두번 째는, 일본의 현대민화 연구에 있어서, 민화 조사 및 그것에 기초를 두는 엔트로폴로지에 편집할 때, 편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7) 이 중에서 첫번 째의 가능성은 고도경제성장 이후 「종류」의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탈정치화가 만연하여 거세되어버린 일본의 사회인들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의

미이고, 두번 째의 가능성은, 첫번 째의 견해와는 달리, 일본 사회에도 풍자적 소화는 존재하고 있지만 현대민화 연구가들이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피담·불가사의담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전설에만 주목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의미한다.

(8)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그 해답을 가릴 수 없다. 발표자로서는 오히려 양자의 복합이 이와같은 상황을 낳은 게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후의 조사연구의 진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9) 따라서 일본의 현대민화에 대해서는 연구상의 편향을 배제한 후에, 사회의 실태에 입각한 필드워크—예를 들면, 비「종류」계층이나 소수 계층 등에 대한 조사—을 실시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이야기의 실제의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0) 현대민화 연구를 포함한 민속학의 일한 비교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관심을 쏟아온 전파적·문화권설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문제 발견의 계기로서의 의의도 그 곳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교민속 연구의 가능성

—한국 제주도과 일본 오끼나와의 내방신 의례를 중심으로—

마사오카 노부히로

최근 민속학에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사례를 대상으로 한 비교민속 연구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그 업적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개별적인 사례 연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국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민속학에 있어서, 왜 해외와의 비교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로써 밝혀진 결과가 민속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와 같은 학문적 의의에 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되어온 비교 민속 연구가 어떤 목적 아래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연구 시각의 특질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서 필자가 조사한 한국 제주도 내방신 의례와 오끼나와의 그것과를 비교 검토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민속학에서의 문제점과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비교 민속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면 이리하다. 현시점에서는 해외의 사례와의 비교 연구에 의해 일본인의 민족성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민속 자료를 가지고 일본인의 민족성을 밝힌다고 하는 일본 민속학의 목적과도 대응하는 것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모순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의의라는 시점에서, 한국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내방신 의례를 검토한 결과, 양자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제주도와 오키나와라는, 국가와 민족이 다른 장소의 민속이 서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점에서 보면, 비교 민속 연구에 의해 얻은 성과가 서로서로의 민족성의 특색을 규명한다는 것에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 현재 민속학에 있어서 내셔널리즘과 같은 정치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난 학문 레벨의 논의와 사례 분석의 결과의 불일치는 대단히 흥미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속은 국가나 민족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민족성을 묘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종래의 민속학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비교 민속 연구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속학이 자명시해 온 민속=민족성이라는 도식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정치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기의 문화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검토 가능한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의 민속학에 있어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